保健敎育 · 健康增進學會誌 第20卷 第1號(2003. 3) pp.147-158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0, No.1(2003)

서울시내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련 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관계 연구

배수현* · 문인옥* · 김연희**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학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오늘날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일반 대중의 생활태도와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었다(김신정 외, 1997). 또한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문화의 발달에 비례해서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 신체 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혜정, 1996).

피부는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부질환의 발생과 분포양상은 다른 모든 질환보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인구, 문화, 기후,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다(Canizares, 1960 ; Ratzer, 1969).

또한 오늘날 건강 관리의 초점은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향상, 과학의 발달로 치료 위주의 개념에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서연옥, 1995).

피부건강 관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논문으로는 피부질환에 유용한 화장품 및 피부건강관리의 새로운 발전(Eckstein, 1988), 피부수술 후의 피부건강관리 및 화장품 선택의 중요성(Jekins, 1989), 민감성 피부에 관련된 요인 및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연구(Eckstein, 1988) 등이 있다. 우

교신저자: 문인옥
전화: 02) 3277-2578
이-메일: iomoon@ewha.ac.kr

리 나라에서는 중년여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김봉인, 1998), 여성의 피부미용 관리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김복희, 1998), 일부 여성의 생활행태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송경아, 1997),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임혜원, 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대생의 피부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시작하고 결혼과 취업 등으로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는 여대생의 피부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피부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여대와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각 400명씩 총 800명을 연구자가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는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사전에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직접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나,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68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여대생의 피부건강행위에 관한 문항은 박지영(2001), 명은진(2000), 김혜진(2000), 임혜원(1999), 김복희(1997) 등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7개 문항, 피부관련 특성 5개 문항, 피부건강행위 20개 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피부건강행위의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는 0.86이었다.

피부건강행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나누어 '항상 그렇게 한다' 5점, '대체로 그렇게 한다' 4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3점,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2점,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내용

구 성	세부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연령, 대학교 유형, 학년, 생활수준, 외모만족도,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	7
피부관련 특성	피부상태, 피부유형, 피부에 대한 고민,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화장품 부작용 경험	5
피부건강행위	피부관리습관, 피부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화장품 사용 및 방법	20
계		32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이용한 분석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관련 특성, 피부건강행위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일부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피부관련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의 차이검정은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3.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련 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3세가 24.7%, 24세 이상이 19.7%, 21세와 22세가 각각 18.4%, 18.0%였고, 20세 17.1%, 19세 이하 2.2%로서 23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유형으로는 남녀공학대학이 53.0%, 여자대학이 47.0%로 남녀공학대학의 대상자가 더 많았다.

학년을 살펴보면 3학년이 26.0%, 4학년 21.9%, 2학년 20.6%로 3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활수준은 65.0%가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상」 24.5%, 「중하」 4.4%, 「하」 3.5%, 「상」 2.6%로 응답하여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56.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만족한다' 26.7%, '만족하지 않는다' 12.3%, '매우 만족한다' 2.6%,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의 순이었다.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다' 39.6%, '보통이다' 37.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4.5%, '매우 건강하다' 6.6%,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8%의 비율로서 '건강한 편이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는 '보통이다' 57.5%, '관심이 많다' 36.8%, '관심이 없다' 5.7%의 비율로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

2. 연구대상자의 피부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피부상태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3.4%로 가장 많았고, '좋은편이다' 30.7%, '나쁜편이다' 28.5%, '매우 나쁘다' 4.4%, '매우 좋다'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유형은 「복합성」이 43.1%, 「건성」 17.1%, 「지성」 15.8%, 「중성」 13.1%, 「민감성」 7.9%의 비율로 복합성 피부유형이 가장 많았다.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는 여드름이 41.2%로 가장 많은 피부고민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22.3%, 잔주름 12.8%, 거칠음 11.4%, 피부색 10.5%의 순이었다. 기타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는 피부의 점, 각질, 주근깨, 예민함 등이 있었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친지, 친구를 통해서 32.1%,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 22.8%, 피부과 의원 5.7%, 미용관련업소나 미용인을 통해서가 1.8%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경험 여부는 '없다' 59.7%, '있다' 39.9%로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3).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85)

특 성	구 분	인원수(%)
연 령	19세이하	15(2.2)
	20세	117(17.1)
	21세	126(18.4)
	22세	123(18.0)
	23세	169(24.7)
	24세이상	135(19.7)
학 교	남녀공학대학	363(53.0)
	여자대학	322(47.0)
학 년	1학년	147(21.5)
	2학년	141(20.6)
	3학년	178(26.0)
	4학년	150(21.9)
	기타(휴학생 등)	69(10.1)
생활수준	상	18(2.6)
	중상	168(24.5)
	중	445(65.0)
	중하	30(4.4)
	하	24(3.5)
외모만족	매우 만족한다	18(2.6)
	만족한다	183(26.7)
	보통이다	388(56.6)
	만족하지 않는다	84(12.3)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2(1.8)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5(6.6)
	건강한 편이다	271(39.6)
	보통이다	258(37.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99(14.5)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12(1.8)
건강관심	관심이 많다	252(36.8)
	보통이다	394(57.5)
	관심이 없다	39(5.7)

<표 3>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련 특성

(n=685)

특 성	구 분	인원수(%)
피부상태 (자가평가)	매우 좋다	21(3.1)
	좋은 편이다	210(30.7)
	보통이다	229(33.4)
	나쁜 편이다	195(28.5)
	매우 나쁘다	30(4.4)
피부유형 (자가평가)	건성	117(17.1)
	중성	90(13.1)
	지성	108(15.8)
	복합성	295(43.1)
	민감성	54(7.9)
	모름	18(2.6)
	무응답	3(0.4)
피부고민	잔주름	88(12.8)
	여드름	282(41.2)
	거칠음	78(11.4)
	피부색	72(10.5)
	기타(점,각질,주근깨 등)	153(22.3)
	무응답	12(1.8)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대중매체	240(35.0)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	156(22.8)
	가족,친지,친구	220(32.1)
	미용관련업소,미용인	12(1.8)
	피부과 의원	39(5.7)
	기타	15(2.2)
	무응답	3(0.4)
화장품 부작용 경험	있다	273(39.9)
	없다	409(59.7)
	무응답	3(0.4)

3. 피부건강행위

총 20개 문항의 피부건강행위는 '항상 그렇게 한다', '대체로 그렇게 한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를 5점에서 1점까지로 계산하여, 최고 100점, 최저 20점이 되도록 점수화 하였다. 본 연구결과 피부건강행위 점수의 분포는 20-40점 8.7%, 41-60점 51.6%, 61-80점 36.7%, 81-100점 0.4%로 최저 점수가 22점, 최고 점수가 97점이고 평균은 56.9점±11.4로 나타났다(표 4).

<표 4> 조사대상자의 피부건강행위에 대한 점수 분포

점 수	명	%
20-40점	60	8.7
41-60점	352	51.6
61-80점	252	36.7
81-100점	3	0.4
무응답	18	2.6
합 계	685	100.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

먼저 연령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23세가 59.8점으로 가장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19세가 52.0점으로 가장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유형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여자대학의 경우 평균 58.1점으로 남녀공학대학의 55.7점보다 피부건강행위가 높게 나타나 학교유형별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p<.01$). 이는 여자대학의 경우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피부건강에 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피부건강행위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기타(휴학 등)의 경우에 가장 높은 62.4점으로 피부건강행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의 경우 54.0점, 1학년의 경우 5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가 나타나 학년별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p<.001$).

소득수준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상의 집단의 경우가 65.3점으로 가장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하의 집단의 경우 41.5점으로 가장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여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외모만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경우 46.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건강상태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다'의 경우 59.9점으로 가장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 49.7점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건강관심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 58.3점으로 가장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42.2점으로 가장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결과로 피부

건강행위는 우선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피부건강행위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5).

5. 피부관련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

피부관련 특성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비교하여 보면 피부상태가 '매우 좋다'의 경우 57.1점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피부건강행위 점수

특 성	구 분	Mean±S.D.	t 또는 F
연 령	19세이하	52.00±5.67	6.37***
	20세	54.84±9.10	
	21세	58.87±11.10	
	22세	55.75±9.78	
	23세	59.86±11.23	
	24세이상	54.56±13.28	
학 교	남녀공학대학	55.73±12.19	-3.15**
	여자대학	58.18±10.37	
학 년	1학년	56.48±9.74	7.46***
	2학년	54.04±11.27	
	3학년	57.00±12.28	
	4학년	57.22±11.14	
	기타(휴학생 등)	62.43±11.57	
소득수준	상	65.33±7.60	21.53***
	중상	60.07±10.04	
	중	56.47±10.38	
	중하	50.70±15.9	
	하	41.57±17.73	
외모만족	매우 만족한다	48.83±20.03	7.93***
	만족한다	59.98±8.52	
	보통이다	56.16±10.91	
	만족하지 않는다	56.92±14.47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46.00±8.32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54.53±13.68	10.73***
	건강한 편이다	59.93±9.62	
	보통이다	55.27±11.97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4.42±10.20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49.75±20.47	
건강관심	관심이 많다	58.33±11.49	36.57***
	보통이다	57.33±10.03	
	관심이 없다	42.25±14.68	

** p<.01, *** p<.001

으로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나타냈으며,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의 경우 각각 56.2점, 50.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민감성의 경우 61.0점으로 가장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모름의 경우 39.0점으로 가장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피부상태가 민감한 여대생의 경우가 다른 피부유형의 여대생보다 피부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자신의 피부유형을 모르는 경우 피부건강행위도 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부고민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는 피부색의 경우 59.7점, 잔주름 59.6점으로 상대적으로 피부건강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거칠음의 경우 53.7점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피부과 의원을 통해서

<표 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련 특성별 피부건강행위 점수

특 성	구 분	Mean±S.D.	t 또는 F
피부상태 (자가평가)	매우 좋다	57.14±6.91	3.98**
	좋은 편이다	56.70±12.39	
	보통이다	58.41±9.68	
	나쁜 편이다	56.27±11.82	
	매우 나쁘다	50.40±14.35	
피부유형 (자가평가)	건성	57.63±11.03	11.71***
	중성	55.31±8.59	
	지성	57.73±10.59	
	복합성	57.11±11.44	
	민감성	61.05±10.06	
	모름	39.00±15.70	
피부고민	잔주름	59.60±12.88	3.54**
	여드름	56.75±10.76	
	거칠음	53.76±11.75	
	피부색	59.75±8.13	
	기타	55.92±12.83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대중매체	59.38±9.99	10.88***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	56.80±11.07	
	가족,친지,친구	53.44±12.43	
	미용관련업소, 미용인	61.25±8.93	
	피부과 의원	63.58±8.39	
	기타	48.60±10.34	
화장품 부작용 경험	있다	59.34±10.25	22.44***
	없다	55.25±11.61	

** $p<.01$, *** $p<.001$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경우 63.5점, 미용관련업소 · 미용인을 통해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경우 61.2점으로 높은 피부건강행위를, 가족 · 친지 · 친구의 경우 53.4점, 기타의 경우 48.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피부건강행위를 보였으며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른 피부건강행위를 살펴보면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59.3점으로, 없는 경우 55.2점보다 피부건강행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6).

6. 피부건강관련 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관련성

피부건강관련 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피부상태와 건강상태($r=.227$, $p<.01$), 건강상태와 피부건강행위($r=.164$, $p<.01$), 건강관심과 피부건강행위($r=.22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피부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피부건강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표 7> 피부건강 관련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

	외모만족	건강상태	건강관심	피부상태	피부건강행위
외모만족	1.000				
건강상태	.159**	1.000			
건강관심	.047	-.076*	1.000		
피부상태	.400**	.227**	.003	1.000	
피부건강행위	.073	.164**	.220**	.062	1.000

* $p<.05$, ** $p<.01$

Ⅳ. 고 찰

피부의 상태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나이, 스트레스, 개인의 식습관과 피부관리방식 등의 영향을 받으며, 피부유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성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피부유형은 「복합성」이 가장 많았는데, 고혜정(1996), 임혜원(1999) 등의 연구에서도 복합성 피부가 가장 많이 나타나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최정숙(1997)은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성인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피부에 대한 고민은 여드름이 가장 많았는데(41.2%) 이는 20대의 경우 주된 피부문제가 여드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김광옥(1996), 송경아(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임혜원(1999)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피부고민은 여드름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김선혜(2000)의 연구에서 30대 후반부터는 피부노화의 징후인 잔주름과 피부탄력 저하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35%) 김선혜(2000), 임혜원(1999)의 연구에서도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중매체의 경우 가장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고혜정(1996), 김선혜(2000)의 연구에서 연령별로 화장품 부작용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 화장품 부작용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젊은 층에서 화장품 부작용의 발생비율이 높은 이유는 처음 화장품을 사용하는 시기로 자신의 피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장품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생산과정에서 화장품의 주요성분 표시와 유통기간 표시 등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에 따른 피부건강행위 점수는 임혜원(1999), 김성복(2001)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졸업, 결혼 등을 앞두고 용모에 관심이 많아져 피부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부건강행위에 대해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피부건강행위에 대한 점수는 휴학생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휴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피부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피부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반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피부건강상태가 좋은 여대생일수록 피부건강행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김선혜(2000)와 김성복(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피부유형이 민감성인 여대생이 다른 피부유형을 가진 여대생보다, 피부색이나 잔주름으로 고민하는 여대생이 다른 피부고민을 가진 여대생보다 피부질환을 최소화하고 피부노화를 예방하려는 피부건강행위가 높았다. 따라서 이들 여대생들이 화장품 선택시 체계적인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자세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부유형을 모르는 여대생들도 있었는데, 이들 여대생들이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부건강관리나 피부건강행위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대학에 다니는 여대생보다 여대에 다니는 여대생의 경우, 재학생보다 휴학생의 경우 피부질환을 최소화하고 피부노화를 예방하려는 피부건강행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이들 여대에 다니는 여대생이나 휴학생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피부건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피부건강행위를 파악하고, 피부건강행위와 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여대생의 피부건강행위의 의미를 고찰하고 피부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여대의 여학생 322명, 남녀공학대 여학생 363명으로 총 685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피부건강행위 점수의 분포는 20-40점 8.7%, 41-60점 51.6%, 61-80점 36.7%, 81-100점 0.4%로 100점 만점에 최저 점수가 22점, 최고 점수가 97점이고 평균은 56.9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학생보다 휴학생의 경우 피부건강행위의 점수가 높았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대생보다 여대에 다니는 여대생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건강행위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피부건강행위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다.

3. 피부관련 특성에서는 피부상태가 좋을수록, 피부유형이 민감성인 여대생이 다른 피부유형을 가진 여대생보다 피부건강행위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피부색이나 잔주름으로 고민하는 여대생이 다른 피부고민을 갖고 있는 여대생보다, 피부과 의원이나 미용관련업소 · 미용인을 통해서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여대생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는 여대생보다, 화장품 부장용 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없는 여대생보다 피부건강행위의 점수가 더 높았다.
4. 피부건강관련 변수와 피부건강행위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 피부상태와 건강상태 ($r=.227$, $p<.01$), 건강상태와 피부건강행위 ($r=.164$, $p<.01$), 건강관심과 피부건강행위 ($r=.22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피부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피부건강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혜정. 흡연과 피부표면 수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복희. 여성의 피부미용관리와 화장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복희.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봉인.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선혜. 지역사회주민의 피부관리 실태와 관련요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성복. 여성의 피부건강관리의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순옥 · 김은자. 여성피부미용의 일반적 형태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1996;5(2):443-457.

김신정 · 김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1997;27(2):264-273.

김희진. 중년 여성의 피부관리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남철현. 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1996.

송경아. 일부여성의 생활행태가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임혜원.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황정원. 피부관리학. 현문사, 1998.

Canizares O. Geographic dermatology, Mexico and Central America, Arch Dermatol 1960; 82:870-891.

Eckstein R. A. *Biokosmetik,* New York: Dermascope, 1988.

Jekins H. L. Progressive evaluation of skin irritancy of cosmetic.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1989;11:141-142.

Ratzer MA. The incidence of skin disease in the west of Scotland, Br J Dermatol 1969;81: 456-461.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kin Health and Skin Health Behavior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Soo-Hyun Bae* · In-Ok Moon* · Yeon-Hee Kim**

*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University*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kin health and skin health behavio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to pl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for skin health. 322 university women attending women's universities and 363 university women attending co-educational universities were selected to conduct a questionnaire survey; the total number of examinees was 685, and the examination period was from October 23rd to November 6th, 2002.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core distributions of skin health behavior were as follows; 8.7% of examinees got 20-40 points, 51.6% got 41-60 points, 36.7% got 61-80 points, 0.4% got 81-100 points. The maximum score was 100 points; the lowest score was 22 points and the highest score was 97 points, the average score was 56.9 points.
2. The general characters were as follows; the older subjects were and the higher subjects income levels were : the higher their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were.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students who temporarily stay out of school were higher than those who were enrolled full time.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women attending women's universities were higher than those of university women attending co-educational universities. The greater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s, the better their health states were, the more subjects were concerned about health problems, the higher their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were.
3. Characters related to skin were as follows; the better subjects skin conditions were, the higher their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were.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women whose skin types were 'sensitive' were higher than those of university women whose skin was "not sensitive".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women who worry about their skin wrinkles or skin color were higher than those of university women who have different kinds of skin troubles.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women who get skin-related information through dermatology clinics or beauty salonspecialists in this area were higher than those of university women who get the information through other sources. Scores of skin health behavior of university women who have experienced adverse effects of beauty products were higher than those of university women who have not experienced adverse effects of beauty products.

4.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with skin health and skin health behavior were as follow; Skin states, health status and health concerns al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kin health behavior.

Key words: Skin health behavior, Health concerns, Health status